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11~3/17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살다 막힐 때 한 줄 해결사	동은	조계종출판사
2	대승기신론 강해	한자경	불광출판사
3	도표로 읽는 불교입문	이자랑	민족사
4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현	조계종출판사
5	연꽃법화경(양장본)	원순	법공양
6	보살계본 범망경	심재열	보성문화사
7	선명상 마음의 평화	진우스님 외	조계종출판사
8	대방광불화엄경강설-1	여천무비	담앤북스
9	법화경 강의(상)	무비스님	불광출판사
10	가야산의 메아리(영문판)	성철	장경각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숲에서 답을 얻다	홍성범	중도
2	업이란 무엇인가	히라오카 사토시	운주사
3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4	나는 누구인가	라마나 마하리쉬	청하
5	불발 부처님 발우이야기	권오민	운주사
6	요가 호흡 디피카	아헹가/문진희,현천	선요가
7	티벳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초펠 편역/게시 소남	하늘호수
8	부처님의 마지막 발자취	각묵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9	마하시사야도의 위빳사나 수행방법론(1)	일창 담마간다 옮김	불방일
10	논 알코올 티 믹솔로지 (NON ALCOHOLIC TEA MIXOLOGY)	강미희,김선정,김수연,김종분,박정숙 외	차와문화

불교 세계관 알면 사찰이 보인다



불교와 친해지는 만화 사찰의 상징체계

자현 스님 지음
김재일 그림
불광출판사 / 2만2000원

만화로 새 단장한 불교문화 입문서

상징 체계로 읽는 사찰 · 문화유산

쉬운 설명과 시각 자료로 '이해 쏙'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공간은 사찰이다. 전각의 배치, 탑의 위치, 문양과 조각, 다리와 문 하나까지도 모두 불교의 세계관을 담고 있지만 그 상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찰은 그저 '좋은 풍경'에 머물 수밖에 없다.

자현 스님의 〈사찰의 상징세계〉(2012)는 사찰 건축과 불교문화 속에 숨은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내며 불교문화 입문서로 큰 호응을 얻어 왔다.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로 선정되기도 한 이 책이 만화로 새롭게 태어났다.

어린이책을 기획·디자인하는 김재일 작가가 만화 구성과 그림을 맡아 원작의 깊이를 보다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한다.

가장 큰 미덕은 사찰을 '불교의 상징 체계'로 읽어 내는 시선이다. 저자에 따르면 사찰의 가람배치는 불교 우주관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가람의 밑그림에는 '수미산 우주론'이 자리하며, 사찰의 중심에는 수미산 정상의 도리천을 상징하듯 부처님이 모셔진다.

이 같은 시각을 이해하는 순간, 사찰은 불교 세계관을 담은 하나의 우주로 읽히기 시작한다. 사찰 앞에 흐르는 냇물은 '번뇌를 씻고 들어오라'는 상징을 품고 있고, 위에 놓인 다리는 번뇌의 세계인 차안(此岸)에서 깨달음의 세계인 피안(彼岸)으로 건너간다는 의미를 담는다.

탑과 불상, 불화에 담긴 의미도 흥미롭게 풀어낸다. 중국은 황토 평야가 많아 벽돌탑이, 우리나라는 돌이 풍부해 석탑이 주류가 되었다는 설명을 듣고 나면 건축 재료의 차이가 문화적 형식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이해하게 된다.

또 관세음보살의 '천수천안' 상징이나 삼천대천세계의 우주관 같은 교리적 내용도 어렵지 않게 풀어낸다. 삼천대천세계는 하나의 세계가 천 개 모여 소천세계가 되고, 그것이 다시 천 개 모여 중천세계가 되며, 다시 천 개가 모여 대천세계를 이루는 구조를 말한다. 이 거대한 우주가 한 부처가 교화하는 영역이라는 설명은 불교의 스케일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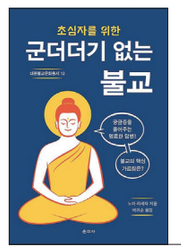
이처럼 책은 사찰 곳곳을 거닐며 불교의 역사와 철학, 미술과 문화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자칫 딱딱해질 수 있는 설명은 만화 형식 덕분에 한결 경쾌해졌다. 등장인물의 대화와 질문, 상황 설정이 이어지면서 독자는 설명을 '읽는다'기보다 사찰을 함께 탐방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풍부한 시각 자료도 책의 장점이다. 사찰의 구조와 전각, 불화와 유물 등을 보여 주는 125장의 사진이 수록돼 생생함을 더한다.

'힙불교' 열풍에도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교리의 문턱 때문이다. 그러나 사찰의 풍경 속 상징을 읽는 순간 불교는 더 이상 어려운 철학이 아니라 일상 속 문화로 다가온다. 탑과 전각, 기와 문양과 조각 하나까지도 불교의 사유가 응축된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무심코 지나쳤던 사찰 풍경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그 안에 담긴 불교의 언어를 읽어 내도록 돕는 이 책은 불교 입문자와 청소년은 물론, 사찰을 자주 찾는 불자들에게도 새로운 시각을 건네는 교양서가 될 것이다.

문답으로 배우는 불교 핵심 가르침



초심자를 위한 군더더기 없는 불교

노아 라셰타 지음
백귀순 옮김
운주사 / 1만5000원

팟캐스트 진행자의 불교 안내서

붓다 생애 · 가르침 · 수행 설명

저자는 개인적 시련 속에 불교를 처음 만났다. 명상에서 위안을 찾고자 했지만, 삶의 고통을 없애는 '비법'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괴로움을 없애려 애쓰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괴로움을 안겨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불교를 깊이 파고들었고, 이후 명상 모임과 '세속 불교(Secular Buddhism)'라는 팟캐스트 등을 통해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다.

〈초심자를 위한 군더더기 없는 불교〉는 그가 명상 모임을 지도하고 강연을 하며 수없이 받았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정리한 책이다.

1부 '붓다'에서는 역사적 인물로서 고타마 싯다르타의 삶을 다룬다. 왕자로 태어나 수행자가 되고 깨달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의 가르침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했는지를 설명한다.

2부에서는 불교의 핵심 개념을 소개한다. 고, 무상, 공, 업, 윤회와 깨달음 등 불교의 기본 개념들이 어렵지 않은 언어로 정리되어 있다. 3부에서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사성제와 팔정도, 오온 등의 내용을 다룬다.

마지막 장은 수행의 영역이다. 계율과 명상, 염불 등을 소개하고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지를 알려 준다.

불교의 가르침을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은 독자라면 책 말미에 담긴 추천 자료를 찾아보길 권한다.

여수령 기자

2000년을 건너온 삶의 지혜



판차탄트라

배해수 엮음
지혜의나무
3만8000원

다섯 묶음의 고대 인도 우화집

현대에도 유효한 삶의 지혜 담아

인간의 삶을 비추는 가장 오래된 거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화다. 짧은 이야기 속에서 인간의 욕망과 관계, 선택과 결과를 비춰 주는 우화는 시대와 문화를 넘어 전해져 왔다.

〈판차탄트라〉는 우화 전통의 뿌리라 할 수 있는 고대 인도의 고전을 우리말로 옮긴 책이다. 스크리트어로 '판차(Pancha)'는 다섯을, '탄트라(Tantra)'는 지혜를 확장하는 방법이나 원리를 뜻한다. 이름 그대로 '다섯 묶음의 지혜로운 이야기'라는 의미다.

전승에 따르면 이 이야기는 브라만 학자 비슈누샤르마가 왕의 세 왕자를 교육하기 위해 들려 준 우화에서 비롯됐다. 학문적 교리를 직접 설명하는 대신, 동물과 인간이 등장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치는 방식이다.

우화들은 인간 사회의 본질을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친구를 배신하지 않는 의리, 예상치 못한 관계에서 피어나는 우정, 갈등과 전쟁 속에서 얻는 교훈, 이익과 손해의 계산, 경솔함이 부르는 실수 등 인간 삶의 다양한 국면이 다섯 개의 이야기 묶음 속에 담겨 있다. 각각의 이야기는 액자처럼 서로 연결돼 있어 한 편을 읽다 보면 또 다른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를 이룬다.

이야기 속 인물들은 때로는 슬기롭고, 때로는 교활하며, 때로는 약삭빠른 선택을 한다.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상황에서는 지혜로, 다른 상황에서는 술책으로 읽힐 수 있다.

책을 엮은 배해수 씨는 산스크리트어 원본의 흐름을 바탕으로 하되, 대화체 중심의 문장으로 각 이야기를 독립된 장으로 구성하고 지나치게 낯선 고어와 장황한 호칭은 덜어 냈다. 이야기의 형식은 동화처럼 친숙하지만, 행간에 담긴 질문은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신뢰와 이익 사이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생각하게 만든다.

저자는 "어른들이 먼저 읽고 아이들에게 전해 주는 동화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260자



정견 스님의 반야심경 법문

정견 스님 지음
통섭불교원
3만8000원

정견 스님의 2년 강설 엮어

"나와 대상 이해하는 가르침"

정견 스님이 2007년부터 2년 동안 제천 제불선원에서 〈반야심경〉을 강설한 내용을 묶은 책이다.

정견 스님은 "교학으로는 신라 시대 유식학의 대가이신 원측 스님의 〈반야심경〉 강의와 선학으로는 송나라 대원 선사의 〈심경주해〉를 참고해 하나의 대강(大綱)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총 34강으로 먼저 경전의 이름인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에 담긴 뜻을 설명한 후, 각 구절에 담긴 의미를 풀이한다.

스님은 "보편적으로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반야심경〉의 대의"라며 "〈반야심경〉을 배운다는 것은 세계를 보는 나와 대상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이며, 진리를 터득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책을 엮은 사단법인 통섭불교원의 김성규 원장은 "강의를 통해 불교를 알게 하고, 견성이 무엇이고 어떻게 견성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신 정견 스님의 불은(佛恩)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인생,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
이제는 될놈안이다(될 놈은 안을 들여다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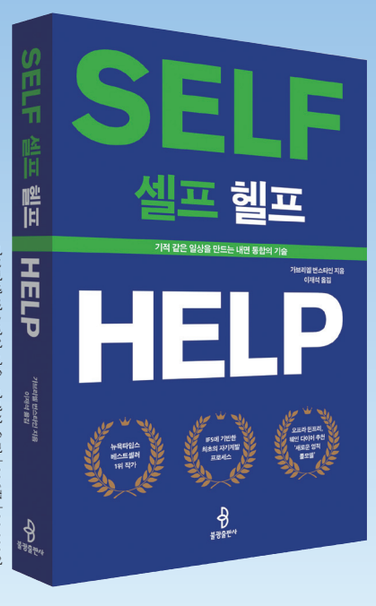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작가의 신간
IFS에 기반한 최초의 자기계발 프로세스
웨인 다이어 · 오프라 윈프리 · 포브스 추천 영적 롤모델

"나는 왜 늘 제자리걸음일까?"

반복되는 작심삼일에 지친 사람
내 안의 불안, 분노, 우울을 다스리고 싶은 사람
진짜 나(Self)를 되찾아 인생을 리셋하고 싶은 사람



당신의 결심을 실현시켜 줄
'4단계 내면 점검 과정'



가브리엘 번스타인 지음, 이세석 옮김 | 306쪽 | 20,000원

SELF
셀프 헬프
HELP
기적 같은 일상을 만드는
내면 통합의 기술

진정한 변화와 성장은 언제나
내면에서 시작된다!

혁신적인 이론인 내면가족체계[IFS]에 기초해
내 안에 깃든 '힘'을 발견하고 발휘하는 방법



★★★ "이 책으로 내 평생의 꿈이 이루어졌다!" - 리처드 슈워츠 박사
★★★ "가브리엘은 보물이다. 그녀의 작업을 진심으로 존경한다." - 웨인 다이어
★★★ "그녀는 새로운 사상의 리더다." - 오프라 윈프리
★★★ "아직도 그녀의 책을 보지 않았다면, 걷지 말고 뛰어가라." - 제시카 알바

지금이 바로 당신의 삶을 바꿀 기회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